

안민재 (Emjay Ahn)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
개인 프로젝트 기획안
2019년 1월 27일

PROJECT. Mark 1

TM

1. 프로젝트 소개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중 가장 일반 대중과 시민들에게 밀접한 권리는 '상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마다 그들의 제품과 프로젝트를 출시 할 때, 그들 각각에 브랜드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첫인상을 결정하고, 그 후에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상표권은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 이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렇게 상표권에 대한 필요와 관심에 비해, 나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은 저와 같은 비전문가가 느끼기에 어렵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표법의 등록요건 법조문 중 일부 예시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11호 :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생략)

위 조문을 읽어보면, 어떤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또한 저명한 타인은 과연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저명한지, 매우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특허청의 심사관, 법관들은 누적된 경험과 개념으로 일정하게 확립된 기준으로 상표의 등록과 거절을 결정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되어 개인적으로 느낀 모호함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상표 등록과 거절의 현존 기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 프로젝트 목적

등록상표와 거절된 상표 사이에서는 각각의 공통점이나 특징(feature)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 우리나라 상표법이 제시하는 상표등록기준을 모델링 해보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본 프로젝트 초기 목적은 한정된 지정상품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지정상품 내에서 모델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3.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계획

Step 1. 데이터 수집 (~ 2019. 2. 3.)

- A. 방법 : Crawling (Selenium & Requests(python package))
- B.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kipris.or.kr>)
- C. 대상 : 한정된 지정상품내 중 등록 혹은 거절된 상표 이미지, 각 상표의 출원일(날짜), 등록일자, 도형코드, 상품분류, 등록여부(Label)

Step 2. EDA & Data Preprocessing (~ 2019. 2. 8.)

Step 3. Modeling (~ 2019. 2. 15.)

- D. 사용한 모델의 종류 : Perceptron 과 CNN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Deep Learning

Step 4. Analysis & Feedback (~ 2019. 2. 15.)

Step 5. 결론 도출 (~ 2019. 2. 16.)

4. 프로젝트 예상 결과

일정 정도의 Validation Score 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등록, 거절 상표들의 공통점을 찾아, 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표법은 시장 상황과 유행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해마다의 등록, 거절 상표 역시 이를 반영할 것임을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워질 제 모델 역시 매년의 트렌드를 반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본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될 지 여부를 편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은 상표를 개발하기 위한 자원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업에

서 서비스화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순기능적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 등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표 판단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를 그대로 구현할 수 없더라도, 일부 상표 데이터를 활용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